

남해석각과 서불관련설의 문제점

문 치 응*

〈目 次〉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남해석각 | |
| III. 서불관련설의 문제점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남해석각과 관련한 서불 관련성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남해석각은 진시황의 사신인 서불(徐市)과 관련이 있는 유적일 것이라는 설(說)이 있지만 근거는 없다. 서불과 관련한 구전이 전해지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서 서불의 방문을 증명할 만한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자 남해석각을 서불과 관련된 것으로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남해석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고문자 비교, 탁본 분석 등의 기준에서 분석하였지만 석각의 내용이 서불과 관련성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제주에 전해지는 서불 방문과 관련한 근거로 제시된 일본인 학자의 탁본도 남해석각의 일부임을 확인하였다. 서불의 제주 방문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남해석각의 글자군 일부를 이용하여 마치 남해석각과

* 홍익인간재단 역사문화기술연구원.

동일한 것이 제주에 있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금석문 분야의 전문가들의 판단도 남해석각의 문자가 서불 시대의 것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남해석각의 내용이 서불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내릴 수 있으며, 그곳의 고적은 서불의 방문 이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해석각에 관한 연구는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고적들과 함께 그 석각의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주제어 : 남해석각, 서불, 「임(臨) 남해각자」, 제주서불유적, 탁본

I. 서론

남해석각은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금산(錦山)의 계곡 중턱 바위위에 있으며, 오경석의 『삼한금석록』¹⁾과, 1919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금석총람』²⁾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금석총람』에서는 남해석각의 탁본과 그 제목, 규격에 대한 내용만 전하고 있고, 『삼한금석록』에는 이 석각에 대한 중국인 금석문 전문가의 견해가 들어 있다. 또한 『태백일사』에는 남해 금산에서 석각(石刻)이 있는 지리적 위치 정보와 그 석각에 새겨진 석문(石文)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³⁾ 그 석각의 내용에 대해 『삼한금석록』과 『조선금석총람』은 서불관련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태백일사』에서는 삼신관련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곳을 방문한 대표적인 인물로 신라 때의 최치원 선생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서불에 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남해석각을 보는 또 다른 측면의 접근

1) 오경석, 「금산석각발」, 『삼한금석록』,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 1981.

2) 조선총독부, 「南海傳徐市題名石刻」, 『朝鮮金石總覽』(上), 조선총독부, 1919, 23쪽.

3) 이백,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편」, 『환단고기』, 숙명여대 도서관 소장본(출판사 미상), 1911, 92쪽.

은 여러 지역의 암각화에서 발견되는 동물과 사람이 어울려 사냥 또는 고기잡이 하는 것과 관련한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담은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있다.⁴⁾

남해석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진시황(BC 246~209)의 사신인 서불(徐市)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천하의 6국을 통일시킨 진시황이 방사(方士)들을 방장(方丈), 영주(瀛主), 봉래(蓬萊)로 불리는 삼신산(三神山)이 있다고 전해지는 삼한(三韓)지역으로 보내 불사약을 구하도록 하였다.⁵⁾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지리산을 방장산으로 부르고 있으며, ⁶⁾ 서불에 대한 전설도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제주의 서귀포에는 서불이 그곳에 왔다가 자신이 다녀간 흔적을 남기고자 바위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하지만, 현재 만족할만한 근거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⁷⁾ 이밖에 지리산 주변 지역, 거제도, 남해안의 몇몇 지역에서도 서불이 방문을 하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서불의 한반도 방문과 관련한 연구와 논문은 한, 중, 일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서불의 동래설에 대해 많은 발표가 이루어졌지만, ⁸⁾ 서불의 방문과 관련한 고고학적인 발견은 보고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서 서불에 대한 구전을 증명할 만한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자 남해석각을 서불과 관련된 것으로 보려는 시

4) 정인보, 『조선사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83, 233~242 ; 황용훈, 『동북아시아의 岩刻畫』, 민음사, 서울, 1987, 91~92쪽.

5) 사마천, 「봉선서」, 『사기』 권28: 「진시황본기」, 같은 책 권6: 이익, 「천지문삼한조」, 『성호사설』 제3권.

6) 서거정 등, 「제주목 산천」, 「남원도호부 산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서울, 명문당, 1994, 671쪽, 675쪽.

7) 김일권, 「남해 금산 암각바위에 대한 종교사적 연구: 조선시대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서불과 남해 심포지엄 자료집』, 2006, 37~55쪽.

8) 정수일, 「서북도한고」, 『문명교류사연구』, 경기, 사계절출판사, 2002, 359~399쪽; 주영하, 「전설의 공유: 동북아시아 서불 전설과 남해의 위상」, 서불과 남해 학술심포지엄자료집, 2006, 1~36쪽.

도가 있다. 1910년 발행된 『朝鮮』지에 실린 일본인 쓰가하라(塚原熹)의 「濟州島にある秦徐福の遺跡考(제주도에서의 진(秦)의 서불유적考)」⁹⁾에서는 남해석각의 글자들과 같은 것이 마치 제주에 있는 것처럼 하였다. 1800년대 중반의 금석문 전문가로 알려진 오경석의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의 아들 오세창이 만든 「임(臨) 남해각자」에서도 같은 시도가 발견된다. 이 자료 역시 남해석각에 새겨진 글자들을 포함하는 탁본을 이용하여 중국인 금석문 전문가인 하추도(何秋濤)의 해석이라는 전제에 “徐市起禮日出”이라는 해석을 달고 있다.¹⁰⁾

기존의 남해석각에 대한 해석적 접근은 구체적인 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전에 의존하거나 형상의 모양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실적 접근을 위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석각에 새겨진 문자에 대해서는 선사시대의 상형문(象形文), 상고시대의 과두문(蝌蚪文), 은허 지역에서 발견되는 갑골문(甲骨文), 주나라 때의 주문(籀文)으로 보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¹¹⁾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부의 문자들이 비슷한 것이 있다는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특정 부분이 갑골문의 또는 주문의 어떤 문자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석각의 문자는 서불이 살았던 진시황 시대보다 앞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남해석각에 대한 문자학적인 접근으로 문치웅은 석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의 기록을 훈고체계(訓詁體系)에 따라 해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석각에 새겨진 문자들을 분리하고, 그 분리 문자들과 내용을

9) 塚原熹, 「濟州島にある秦徐福の遺跡考(제주도에서의 진(秦)의 서불유적考)」, 『朝鮮』 24호, 1910, 40~41쪽.

10) 예술의전당, 「임 남해각자」, 『위창오세창』, 서울, 한컴닷컴, 2001, 29쪽, 32~33쪽, 125쪽.

11) 김일권, 앞의 논문, 37~56쪽; 예술의전당, 앞의 책, 32~33쪽, 125쪽; 이하우, 『잃어버린 신화, 바위문화이야기』, 서울, 민속원, 2003, 40~51쪽; 淺見倫太郎, 「濟州島に在る徐福の石壁文字」, 『朝鮮』 25호, 1910, 21~25쪽.

학계에 보고하였다.¹²⁾ 석각에 새겨진 문자들은 갑골문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초기의 전서(篆書)체와 유사하며, 이 문자들이 표현하고자 한 내용은 제사에 대한 기록이다.¹³⁾ 이 석각의 문자들에 대한 문자학적 특징은 한자의 부수(部首)와 구결(口訣)의 구결자(口訣字)처럼 문자에 대한 획을 뽑아 표현한 것이다.¹⁴⁾

석각에 새겨진 문자의 형태와 그 기록의 내용으로 볼 때, 석각은 서불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남해석각의 글자들이 서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해석각과 관련한 새로운 접근을 위한 기초 자료가 제시될 것이다.

II. 남해석각

남해석각이 새겨져 있는 바위는 평면 기준 가로 7m, 세로 4m 크기로, 지중의 암반과 연결된 일부가 아니라 지면에 완전히 노출된 독립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형상은 곱게 다듬은 것 같은 둥그스름한 모양을 한 검은색 계열의 화강암 형태이다. 이 바위 위에 가로 1m, 세로 0.5m 넓이에 <그림 1>과 같이 상형문자와 유사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다. 이 석각에 대해 남해각자(南海刻字), 금산마애전각(錦山磨崖篆刻), 상주리석각(尙州里石刻), 서불과차(徐市過此)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을 포괄하는 이름으로 남해석각이라 하도록 하겠다.

12) 문치웅, 「고조선의 고각 남해석각 해석」, 『동아시아고대학회』 18, 2008, 59~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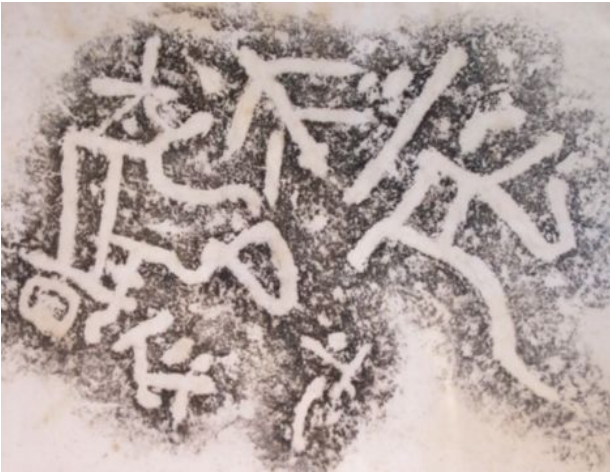
13) 이택, 앞의 책, 92쪽.

14) 문치웅, 앞의 논문, 70~75.



〈그림 1〉 남해석각(사진출처: 남해군청)

〈그림 1〉의 석각 부분을 탁본(拓本)하여 이미지 부분을 자세히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남해석각의 탁본 이미지

<그림 2>의 탁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글자 부분의 이미지만을 분리해 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남해석각의 상세 문자 이미지

1919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된 남해석각에 대한 내용은 <그림 4>와 같다.¹⁵⁾



<그림 4> 『조선금석총람』의 남해석각

15) 조선총독부, 앞의 책, 23쪽.

〈그림 4〉를 보면, 「南海傳徐市題名石刻」이라는 제목과 함께 석각이 있는 위치와 글자들이 새겨진 부분에 대한 규격이 간략하게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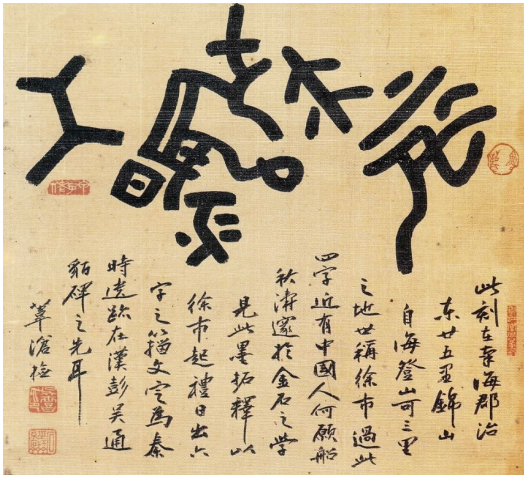
Ⅲ. 서불관련설의 문제점

남해석각에 대한 서불관련설은 진시황때에 한반도에 왔다가 일본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서불이 남해 금산을 찾아왔었다는 내용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서불 관련한 전설은 한국의 경상남도 남해와 거제도, 제주도 서귀포, 지리산 지역을 비롯하여 일본의 규슈(九州) 지역 등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남해석각이 서불이 새겼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서불과차라 하여 남해 지역과 제주에서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해석각이 서불에 대한 구전과 결합하면서 와전(訛傳)되어 서불이 새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서불 관련설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근거가 부족함을 밝혀 나간다.

1. 오세창의 「임 남해각자」의 문제점

남해석각을 서불의 방문과 연결 짓는 내용을 담은 기록으로 『삼한금석록』 「錦山石刻跋」과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된 「南海傳徐市題名石刻」 외에 1924년에 제작된 오세창의 「임 남해각자」¹⁶⁾가 있다. 이 「임 남해각자」는 제작 연도를 달리하여 3종이 전해지고 있으며, 석각의 이미지 부분의 구성과 형태는 거의 유사하다. 〈그림 5〉에 「임 남해각자」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으며, 윗부분에 있는 굵은 그림 모양의 글자들이 남해석각의 문자들을

16) 예술의전당, 앞의 책, 125쪽.



〈그림 5〉 「임 남해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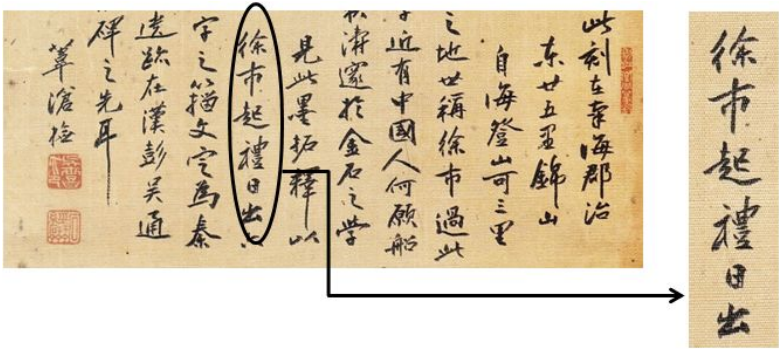
나타낸 것이다.

「임 남해각자」의 아래 부분에서는 이 석각에 대한 해설을 달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此刻在南海郡治東廿五里錦山自海登山可三里之地世稱徐市過此四字近有中國人何願船秋濤達於金石之學見此墨拓釋以徐市起禮日出六字之籀文定爲秦時遺跡在漢彭吳通貊碑之先耳 葦滄撫

오세창의 설명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인 오경석은 남해석각의 탁본을 청나라 금석문 전문가인 하추도(1823~1862)에게 해석을 의뢰하였다. 하추도는 이 탁본의 문자가 주나라 선왕(宣王, BC 827~781)때 정리된 전서(篆書)의 하나인 주문(籀文)으로 인식하고 〈그림 6〉에서 나타낸 것처럼 “徐市起禮日出(서출기례일출)”의 여섯 자로 해석하였다고 하였다.

이 설명대로라면 석각의 문자 모양이 진시왕 때에 이사(李斯)에 의해 체계화된 소전(少篆)의 형태 보다 이전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전(大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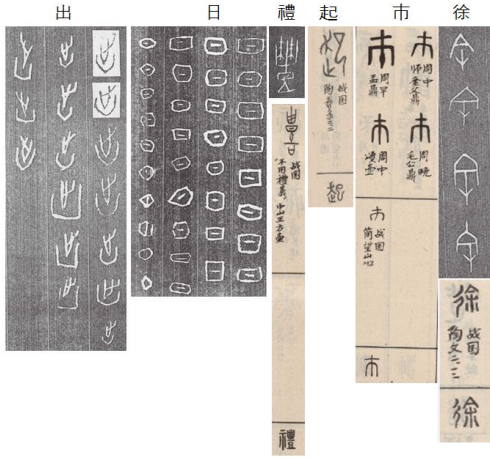
〈그림 6〉 남해석각에 대한 오세창의 해설 “徐市起禮日出”

으로 알려진 주문이라는 것이다. 하추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주나라 이전 인 은나라의 갑골문이나 그 이전의 문자들이 소개되지 않은 때라 남해석각의 글자들을 당시 알려진 가장 오랜 글자체인 주문으로 인식한 것 같다.

「임 남해각자」에서 남해석각의 내용을 “徐市起禮日出”로 인식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갑골문을 포함한 전자(篆字)의 형태들을 모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각 글자들에 대한 전자들을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¹⁷⁾

오세창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 5〉의 「임 남해각자」의 상단부에 있는 남해석각의 문자 부분과 〈그림 7〉에서 나타난 전자체의 ‘徐’, ‘市’, ‘起’, ‘禮’, ‘日’, ‘出’의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 해당 문자들의 일치성은 찾을 수 없다. 단지 〈그림 5〉의 문자군에서 유사한 형태로 ‘日’자 정도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림 3〉에서 ‘日’의 형태를 한 부분의 모양을 〈그림 1〉, 〈그림 2〉, 〈그림 3〉의 탁본 이미지와 자세히 비교, 분석해 보면 이 역시도 오세창이 정리한 ‘日’의 형태와는 다름을 〈그림 8〉을 통해 알 수 있다.

17) 高明, 『고문자류편』, 북경, 중화서국, 1980, 116쪽, 257쪽; 小林徳太郎, 『갑골문자사전(甲骨文字字典)』, 동경, 목이사, 1980, 35~52쪽.



〈그림 7〉 “徐市起禮日出”의 전자체



〈그림 8〉 오세창이 ‘日’로 인식한 부분의 실제 모습

〈그림 8〉의 모양을 보면 〈그림 7〉에서 정리된 ‘日’의 전자체들의 다양한 형태와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세창의 「임 남해각자」의 상단 부에 있는 남해석각의 문자군에서 왼쪽 아래 부분에 있는 ‘日’ 모양으로 나타난 부분의 획은 잘못 나타난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자의 자형을 통한 서불과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다.

오세창은 「임 남해각자」에서 하추도가 남해석각의 글자들을 “徐市起禮日出”이라고 해석하였다고 하였지만, 정작 하추도는 『三韓金石錄』에 수록된 「錦山石刻跋」에서 여섯 자가 아닌 네 자로 인식하고, 그마저도 불분명하다고 하였다.¹⁸⁾ 〈그림 9〉에 오경석의 『三韓金石錄』에 수록된 「錦山石



<그림 9> 삼한금석록에 수록된 하추도의 「錦山石刻跋」

刻跋」 첫 부분의 내용을 나타내었다.

<그림 9>에서 하추도의 해설을 보면 남해석각의 문자들에 대해 “石刻四字”라 하여 석각의 글자 수를 네 자로 인식하고 있다. 계속하여 “書法奇... 不知爲何代何人書”라 하여 그 서법(書法)은 기이하여 무슨 문자인지 알

18) 오경석, 앞의 자료.

수 없으며, 언제 누구에 의해 새겨진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 석각에 대한 정보는 역매(亦梅) 즉, 오경석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으며, 석각이 있는 남해에서는 “서불제명(徐市題名)”으로 불리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고 전해지는 탁본도 없었다고 하였다.

하추도의 「錦山石刻跋」을 통해 볼 때, 1800년대 중반 이전에도 석각과 관련하여 남해에는 서불 방문에 대한 구전이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석각의 내용에 대해 서불과의 관련성은 밝혀진 것이 없다. 따라서 오세창의 「임 남해각자」에서 석각의 내용에 대해 서불과 관련지으려는 시도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그가 근거로 제시한 하추도의 견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하추도는 위의 글에서 남해석각의 문자 형태는 전서와 전서를 단순화한 예서(隸書) 사이의 것들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문자(古文)로 아직 정설은 없지만 형산(衡山) 구루비(峴樓碑)와 같다(如衡山峴樓之碑)고 설명하였다. 형산 구루비는 우비(禹碑)로 더 많이 알려진 것으로 우(禹)가 고대국가 형성 초기에 천하 행정구역 개편 사업인 치수(治水)를 마치고 형산의 구루봉에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⁹⁾ 이러한 하추도의 분석 결과는 문치웅²⁰⁾의 연구에서 석각을 새긴 시기를 서불 이전의 고대국가 형성초기로 파악한 것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문자 인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세창의 자료에서 정리된 문자들은 <그림 3>의 이미지와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0>의 (나)에서처럼 ㉠, ㉡ 두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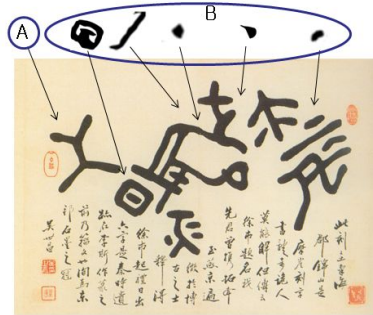
먼저 <그림 10> (나)의 「임 남해각자」에서 ㉠ 부분을 보자. 이 ㉠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석각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그림 1>의 석각 이미지 부분에서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를 분리하여 나타내면 <그림 11>과

19) 朱儉心, 金石學, 대북, 대만상무인쇄관, 1995, 212쪽.

20) 문치웅, 앞의 논문, 59~81쪽.



(가) 남해석각 이미지



(나) 석각 글자 이미지 비교 결과

<그림 10> 남해석각 이미지와 오세창의 「임 남해각자」의 차이

같다.



<그림 11> 남해석각의 왼쪽 상단 부근 특이 문자 이미지

이 <그림 11>의 ㉠ 부분의 글자와 나머지 글자들을 비교해 보면, 문자의 깊이나 형태, 굵기가 서로 다름이 육안으로도 파악이 가능하다. 시간적으로 ㉠ 부분의 문자가 석각의 본체 부분의 문자들보다 최근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 부분의 글자는 남해석각 본체의 글자군과는 독립적으로 후대에 새겨진 것으로, 원래 석각의 글자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하우도 ㉠ 부분의 글자가 원래의 글자군들과 새긴 수법과 획의 굵기가 다름을 지적하였다.²¹⁾ 그런데 <그림 5>의 오세창의 자

료에서는 이 ㉠ 부분이 전체 글자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문자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임 남해각자」의 이미지에 대한 〈그림 10〉(나)의 ㉡ 부분을 보면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된다. 〈그림 3〉의 이미지와 〈그림 5〉의 오세창의 「임 남해각자」를 비교해 보면 여러 군데에서 선과 점이 빠져 있어 글자 구성에서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한자는 하나의 점 또는 선이 특정 글자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에 따라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을 가지는 문자가 된다. 오세창이 정리한 「임 남해각자」는 남해석각에 새겨진 문자들을 정확히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석각이 있는 남해금산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탁본을 이용함으로써 나타난 문제로 판단된다. 오세창의 주장한 “徐市起禮日出”은 〈그림 3〉의 석각 이미지를 통해서도 문자들에 대한 일치성을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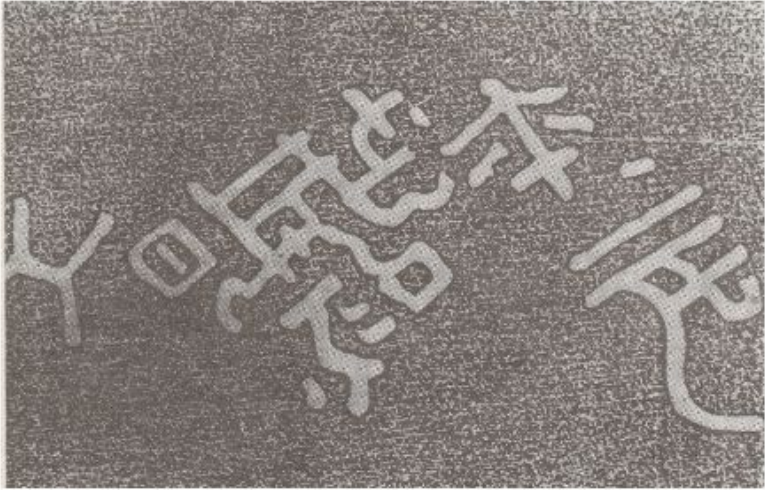
따라서 오세창이 정리한 「임 남해각자」는 근본적으로 남해석각의 글자들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못함과 동시에 서불 관련성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하추도의 해석이란 전제로 “徐市起禮日出”이라 하였지만, 이 역시도 하추도가 석각의 문자를 네 자로 인식한 견해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오세창의 「임 남해각자」는 이 석각의 문자 이미지와 그 해석을 담은 자료로써 가치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으며, 서불과의 관련성도 없다고 판단된다.

2. 제주 서불관련설의 문제

이러한 오세창의 「임 남해각자」의 글자 구성과 같은 자료가 1910년에 일본인 학자 쓰가하라(塚原熹)에 의해 발표된 논문에도 나타난다.²²⁾ 이 논문에 들어있는 문자 이미지는 〈그림 12〉와 같으며, 제주 서귀포에 있는

21) 이하우, 앞의 책, 40~51쪽.

22) 塚原熹, 앞의 논문, 40~41쪽.



〈그림 12〉 쓰가하라가 주장하는 제주의 서불 유적 탁본

서불유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림 12〉의 자료에 대해 쓰가하라는 이 글자군의 의미를 “徐市過之(서불과지)”라 하였다. 또한 이 자료에 대해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탁본하고 서예가인 정학교(丁鶴喬, 1832~1914)가 고증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제주에 있는 서불유적이라 주장하였다. 그는 이 탁본을 입수하여 보니 탁본에 정학교의 설명이 들어 있었는데, 그 설명에 김정희가 제주에 유배 생활을 할 때 한 탁본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일본인 학자인 아사미 린따로(淺見倫太郎)는 같은 해 『朝鮮』지에서 〈그림 12〉의 석문(石文)을 1906년 서울에서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09년 11월에 다시 가보니 그것이 죽자에 꾸며져(裝幀) 판매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글자체는 주나라 시대의 고기(古器)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새겨진 형태가 비슷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석문의 출처에 대해 제주인지는 알 수 없으며, 서불과 관련된 것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²³⁾

그런데 <그림 12>에서 글자군의 구성 형태를 보면 몇 부분에 대한 글자 획의 굵기 표현과 글자들이 위치가 조금씩 다를 뿐 전체적으로 <그림 5>의 「임 남해각자」에서 나타나는 것과 거의 같다. 또한 <그림 11>의 ㉠ 부분에 나타나는 글자도 시기적으로 본체의 글자 군과 다르고 글자를 새긴 방법도 상이하어 육안으로도 구분되는데도 두 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림 11>의 ㉠ 부분에서 다리 모양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진 획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에도 「임 남해각자」와 쓰가하라가 제시한 이미지에는 그 위치만 다를 뿐 획의 길이가 같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세창의 「임 남해각자」의 기본이 되는 탁본자료와 쓰가하라의 논문에 들어있는 것은 출처가 같은 남해석각의 문자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림 12>의 쓰가하라가 제시한 이미지는 오경석이 참고한 탁본과 같을 가능성이 높으며, 남해석각을 기본으로 하여 문자의 이미지만을 다시 돌에 새긴 후 석각처럼 보이도록 탁본을 뜬 것으로 보인다.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쓰가하라는 <그림 12>의 글자군에 대해 “徐市過之(서불과지)”라 하였지만 갑골문과 소전 등의 전서의 글자 형태를 통해 비교해 볼 때 “徐市過之”의 글자 형태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로 볼 때, 쓰가하라는 서불의 방문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서불에 대한 구전이 전해지는 남해석각의 글자군 일부를 이용하여 제주에 있는 서불유적이라고 잘못 접근한 것이 된다. 탁본의 글자 구성과 모양에 대해 <그림 10>과 함께 <그림 12>를 비교해 보면 「임 남해각자」에서 석각의 문자들에 대해 잘못 표현한 부분까지도 거의 똑같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림 11>의 ㉠ 부분이 「임 남해각자」와 쓰가하라의 제주 서불 유적이라고 주장한 <그림 12>에 동시에 들어있다. 이것은 육안으로도 원문의 문자들과 비교해 많은 시간적 차이가 나며 서법과 새기는 방식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23) 淺見倫太郎, 앞의 논문, 21~25쪽.

이렇게 남해 금산과 제주 서귀포에 있다고 주장하는 석각의 탁본에 후대에 새긴 것으로 보이는 특정 글자가 똑같이 들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이 두 탁본은 같은 남해석각의 일부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판단내릴 수 있다. 또한 <그림 12>의 탁본에 대해서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김정희가 탁본하고 정학교가 고증했다고 하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림 12>의 이미지의 문자들은 제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해석각의 일부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오세창이 제시한 것과 유사하거나 같은 것으로 쓰가하라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결국 남해석각과 관련하여 서불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쓰가하라가 제주에 있는 서불 유적이라며 제시한 탁본도 결국은 남해석각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제주의 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해석각에 대한 논의는 서불 이전 시대부터 이미 석각이 그곳에 존재하였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석각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남해석각과 관련한 서불 관련성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서불이 한반도 방문설은 남해뿐만 아니라 제주와 전라도, 일본의 규슈지역 등에 전해지고 있다. 남해 지역에는 제주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처럼 서불이 방문하였다는 구전만 전해질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서불과차”라 하여 남해 지역과 제주에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전해질 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해석각이 서불에 대한 구전과 결합하면서 이 석각을 서불이 새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해석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삼한금석록』과 「임 남해각

자」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였지만 석각의 내용이 서불과 관련성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제주에 전해지는 서불 방문과 관련한 근거로 제시된 일본인 학자의 탁본도 남해석각의 일부임이 확인되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서불의 제주 방문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남해석각의 글자군 일부를 이용하여 마치 남해석각과 동일한 것이 제주에 있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금석문 분야의 전문가들의 판단도 남해석각의 문자가 서불 시대의 것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남해석각이 있는 곳에 그 석각과 짝을 이뤄 함께 있는 제단과 그 제단에 제물 형상의 유적에 대한 학계보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남해석각의 내용이 서불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남해석각에 대한 논의는 서불 이전 시대에 이미 남해 금산에 석각이 있었음에 초점을 맞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고적들과 함께 유적의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논문은 7월 31일에 접수되어, 8월 31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9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참고문헌】

1. 자료

서거정 등, 「제주목」, 「남원도호부 산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서울, 명문당, 1994, 671~675쪽.

오경석, 「금산석각발」, 『삼한금석록』,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 1858.

이택,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편」, 『환단고기』, 출판사 미상, 1911, 92쪽.

이익, 「천지문 삼한조」, 『성호사설』 제3권, 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

이하우, 『잃어버린 신화, 바위문화이야기』, 서울, 민속원, 2003, 40~51쪽.

예술의전당, 「임 남해각자」, 『위창오세창』, 서울, 한컴닷컴, 2001, 29쪽, 32~33쪽, 125쪽.

정수일, 「서북도한고」, 『문명교류사연구』, 서울, 사계절, 2002, 359~396쪽.

정인보, 『조선사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83, 233~242쪽.

조선총독부, 「南海傳徐市題名石刻」, 『朝鮮金石總攬』(上), 조선총독부, 1919, 23쪽.

황용훈, 『동북아시아의 岩刻畫』, 민음사, 서울, 1987, 91~92쪽.

高明, 『고문자류편』, 북경, 중화서국, 1980, 116~257쪽.

司馬遷, 『史記』, 대북, 예문인서관, 발간년 미상, 93~555쪽.

小林徳太郎, 『갑골문자사전(甲骨文字字典)』, 동경, 목이사, 1980, 35~152쪽.

朱儉心, 金石學, 대북, 대만상무인쇄관, 1995, 212쪽.

2. 논저

김일권, 「남해 금산 암각바위에 대한 종교사적 연구: 조선시대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서불과 남해 심포지엄 자료집』, 2006, 37~55쪽.

- 문치웅, 「고조선의 고각 남해석각 해석」, 『동아시아고대학회』 18호, 2008, 59~81쪽.
- 이완우, 「남해 상주리 석각 조사서」, 『남해와 서불 심포지엄 자료집』, 2006, 77~84쪽.
- 주영하, 「전설의 공유: 동북아시아 서불 전설과 남해의 위상」, 서불과 남해 학술심포지엄자료집, 2006, 1~36쪽.
- 塚原熹, 「濟州島にある秦徐福の遺跡考(제주도에서의 진(秦)의 서불유적考)」, 『朝鮮』 24호, 1910, 40~41쪽.
- 淺見倫太郎, 「濟州島に在る徐福の石壁文字」, 『朝鮮』 25호, 1910, 21~25쪽.

Problems associated with Seobul (徐市) and the Namhae stone carving

Chi-ung Moon

In this article, we addres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Seobul(徐市) and the Namhae stone carvings. There is no direct or indirect evidence of a link between the Namhae stone carvings and Seobul regarding the meaning of inscriptions on stone monuments. Some researchers have developed theories that the meaning of stone carvings was related to Seobul because they found no evidence supporting Seobul's visit to Namhae and Jeju. We compared and analyzed extensive research materials related to the Namhae stone carvings. However, no material or practical content related to Seobul's visit were found. We also discovered that a rubbed copy related to Seobul's visit to Jeju is part of the Namhae stone carvings, as proposed by a Japanese researcher. In addition to these results, many researchers of ancient monumental inscriptions determined that the letters on Namhae stone carvings are older than those from the era in which Seobul lived. We concluded that the contents of Namhae stone carvings are not related to Seobul.

* Key Words : Namhae stone carvings, Seobul, rubbed copy from stone, fabricated theories, ancient monumental inscriptions